

2번째 긴급메시지

【5월 9일(토), 5월 10일(일)】

삿포로시에서는 긴급사태선언 후에도 계속해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가장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삿포로시로부터 홋카이도 전역으로 퍼져 감염사태가 만연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도 필요한 의료를 받기 힘들어 집니다.

그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료종사자는 밤낮없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삿포로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번 주말에는 특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더불어 <3개의 밀>을 철저히 피해, 감염을 예방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이행해 갑시다.

1. 삿포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단 집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2. 홋카이도 도민 여러분께서는
삿포로에 가지 말아주십시오!!
3. 홋카이도 도내외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타 지역으로의 왕래를 삼가해 주십시오!!

2020년 5월 8일

홋카이도도지사	스즈키	나오미치
삿포로시장	아키토	가쓰
홋카이도시장회장	야마구치	고타로
홋카이도정촌회장	다나노	다카오